

□ 국내 신간 도서

2009. 12. 02. (수) | 편집진

<유정아의 서울대 말하기 강의-소통의 기술, 세상을 향해 나를 여는 방법>

유정아|문학동네|2009

현직 아나운서이자 라디오 진행자이면서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말하기' 강의 1호 강사로 활동해온 저자가 매스컴 현장과 강의실에서 얻은 노하우를 상세히 소개한 책이다. 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말하기에는 어떤 표준화된 틀이 없다'는 것이다. 유창한 말솜씨, 정확한 발음과 힘 있는 목소리, 안정감 있는 자세, 적당한 말의 속도와 어조 변화, 자신 있는 태도와 눈 맞춤 등 흔히 훌륭한 화자의 특질이라 여기는 능력들도 화자가 제대로 체화하고 자연스럽게 표출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생각이나 내용보다 말재주가 앞선 걸로만 화려한 언변은 결국 허망한 느낌만 안겨줄 뿐 진심을 전달하기 어렵다. 저자는 무작정 지침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의 유형을 꼼꼼히 분석하고 특정 기술을 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안내한다.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

폴 골드스타인(지은이), 오연희(옮긴이)|비즈니스맵|2009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저자가 40여 년 동안 강단에서 활동하고 미국 최대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통해 현실적인 지식재산 관리 비결을 조언한 책이다. 저자는 흥행 영화 한 편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웬만한 회사의 매출을 넘어서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유명인사의 이미지가 돈을 모으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든 지적재산 관련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폴라로이드 시장에서 쫓겨난 코닥이 10억 달러를 손해 본 이야기, 아마존으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한 반즈앤노블이 2년 동안 온라인쇼핑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이야기 등 지식재산권 분쟁의 굵직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각 영역(특허,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을 균형감 있게 다루고 있다.

<고딕, 불멸의 아름다움>

사카이 다케시(지은이), 이경덕(옮긴이)|다른세상|2009

불문학을 전공한 일본 호세대학 교수인 저자가 고딕의 탄생과 수난, 부활의 과정을 따라가며 유럽의 역사와 사회, 문화를 조명한 책이다. 합리성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전까지 고딕 대성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서의 이야기와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을 가르치던 이미지의 집합소였다. 고딕 대성당은 필요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양식을 받아들였다. 저자는 이런 특징을 '경계를 알 수 없는 열린 정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인쇄술의 발명으로 고딕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합리성과 문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고딕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문자가 주는 건조함 보다 이미지가 주는 감성이, 추론과 분석을 통한 사고보다 즉각적이며 종합적인 아이디어가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 저자는 이 때문에 우리가 고딕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한다.